해부 · 생물인류학 제 39 권 제 3 호
Anat Biol Anthropol Vol. 39, No. 3 (2026) pp. 307~314
https://doi.org/10.11637/aba.2026.39.3.307

Check for updates

Short Communication

해부대 위에서 다시 사람을 보는 일: 제임스 브리디의 『해부학자』와 해부실습의 윤리

유임주[1]

[1]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Seeing the Person on the Dissection Table: James Bridie's The Anatomist and the Ethics of Anatomy Education

Im Joo Rhyu[1]

[1]*Department of Anatom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bstract : James Bridie's The Anatomist, based on the Burke and Hare murders in 1828 Edinburgh, provides a point of departure for reconsidering how anatomy education recognizes the personhood of those whose bodies make dissection possible. Central to this perspective is the moment when Walter Anderson, a young anatomist, recognizes that an anonymous body brought into Robert Knox's dissection room is Mary Paterson, a woman who had briefly comforted him only hours earlier. The body itself has not changed; Walter's way of seeing has. What had appeared to be an anonymous specimen is suddenly reconnected with a name, a face, and a human life. Knox, by contrast, remains committed to anatomical truth and his duty to teach while declining to ask where the bodies used for his teaching come from. The historical transition from executed, unclaimed, stolen, and illicitly obtained bodies to voluntary body donation has fundamentally transformed the ethical foundations of anatomy education. Yet repeated dissection, identification of structures, and assessment may still encourage students and teachers to experience a donated body primarily as an object of learning. Professional detachment is necessary for anatomical study, but it should not result in losing sight of the donor as a person. Memorial ceremonies and donor-as-teacher programs offer important ways of sustaining this recognition, but respect for donor personhood should not be confined to isolated rituals. Anatomy curricula can revisit the meaning of donation before, during, and after dissection through historical and ethical orientation, brief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memorial practices, and reflective writing. Theater and literature, including The Anatomist, can further provide a space for discussing professional detachment, objectification, responsibility for the source of bodies, and respect for donor anonymity. The aim is not to prescribe a uniform emotional response to dissection, but to sustain an ethical way of seeing.

이 글은 2026년 8월 8일 대한해부학회 회원들의 연극 『해부학자』 공동 관람을 계기로 작성되었다. 공연은 글의 출발이며, 본문은 오늘날 시신기증과 해부실습에서 기증자의 인격성을 어떻게 꾸준히 인식할 것인가를 돌아본다.
저자(들)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저자(들)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Received: August 28, 2026; **Revised:** September 9, 2026; **Accepted:** September 11, 2026
Correspondence to: 유임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E-mail:** irhyu@korea.ac.kr

www.kci.go.kr
© 2026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Anthropologist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2671-566X (Online)

Those who look most closely at the human body must not lose sight of the person whose decision made such learning possible.

Keywords : Anatomy education, Body donation, Cadaveric dissection, Medical humanities, Personhood, The Anatomist

들어가며: 공연장에서 해부실습실로

2026년 8월 8일 서울연극창작센터에서 공연된 제임스 브리디(James Bridie)의 『해부학자(The Anatomist)』를 동료 해부학자들과 함께 보았다(Fig. 1). 이 글은 그 공연에 대한 감상이나 평이라기보다, 연극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 해부학 교육과 연구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질문 하나를 다시 꺼내 보려는 글에 가깝다(Fig. 2).

『해부학자』는 1828년 에든버러에서 일어난 버크(William Burke)와 헤어(William Hare)의 연쇄살인, 그리고 그들에게서 시신을 공급받았던 해부학자 로버트 녹스(Robert Knox)를 다룬다. 200년 전 에든버러의 해부실과 오늘날 의과대학의 해부학실습실은 전혀 다른 공간이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신은 자신의 뜻에 따라 의학교육과 연구를 위해 몸을 기증한 사람들의 몸이다. 시신을 얻게 된 과정만 놓고 보면 이 극은 이미 지나간 역사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계속 오늘의 해부학실습실을 떠올리게 만든 장면이 하나 있었다. 극중 인물 월터 앤더슨(Walter Anderson)이 해부대 위의 익명의 검체에서 메리 패터슨(Mary Paterson)이라는 여성을 다시 발견하는 장면이다.

우리는 몸의 구조를 정확하게 보는 데는 능숙하다. 그러나 "그 몸이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실마리 삼아, 자발적 시신기증 제도가 자리 잡은 오늘날에도 기증된 몸이 반복되는 실습과 평가 속에서 학습 대상으로만 인식될 가능성은 남아 있으며, 해부학 교육은 기증자의 인격성을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돌아보는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공연장에서 시작된 질문을 해부실습실로 옮겨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1828년 에든버러: 시신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

연극의 배경은 1828년 에든버러다. 당시 에든버러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의학교육의 중심지였다. 해부학 강의에는 학생이 몰렸고, 그만큼 해부에 쓸 시신도 많이 필요했다.

문제는 공급이었다.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신, 곧 사형수의 시신만으로는 늘어나는 해부학 교육과 연구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 틈을 메운 것이 밤마다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훔쳐오던 시신 도굴꾼(resurrectionists)이었다[1,2]. 버크와 헤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무덤을 파는 대신 살아 있는 사람을 죽였고, 그 시신을 녹스의 해부실에 팔았다. 이 사건이 불러온 사회적 충격은 1832년 해부법(Anatomy Act) 제정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1,2].

이 사건을 두 살인자의 엽기적인 범죄로만 읽으면 놓치는 것이 있다. 해부학 교육에는 시신이 필요했고, 합법적인 공급은 부족했다. 학생은 몰려들었고, 해부학자는 가르쳐야 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부족분을 채웠다. 해부학자의 눈으로 보면 이 사건은 갑작스러운 일탈이라기보다, 해부학 교육·연구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오랫동안 보이지 않게 곪아가던 문제가 마침내 터져 나온 사건에 가깝다. 브리디의 희곡에서 녹스 자신도 인간관계 속에 숨은 갈등을 '숨은 농양(hidden abscess)'에 비유하며 그것을 절개해야 한다고 말한다[3,4]. 그 비유를 당시의 해부학 교육과 연구 자체로 되돌려 놓아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시신을 필요로 하는 학문에는 피할 수 없는 질문 하나가 따라붙는다. "그 몸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하거나, 묻지 않는 편을 택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이 연극의 핵심이다.

녹스가 묻지 않은 것

브리디는 『해부학자』를 단순한 역사 재현극으로 만들지 않았다. 실존 인물인 녹스, 버크, 헤어 옆에 젊은 해부학자 월터 앤더슨과 그의 약혼녀 메리 벨(Mary Belle) 같은 허구의 인물을 배치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책임을 두 살인자에게만 묻지 않고, 그 시신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에게까지 넓혀 놓았다[3].

월터는 녹스의 충실한 제자다. 약혼녀와의 결혼을 미루면서까지 해부실에 남으려 한다. 그에게 해부학은 직업이라기보다 거의 신앙에 가깝다. 몸을 열어 그 구조를 정확히 봄으로써 자연의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는다. 녹스는 한층 더 확

www.kci.go.kr



Fig. 1. Poster for the 2026 Korean production of James Bridie's The Anatomist, performed at the Seoul Theater Creation Center in Seoul, Korea, in August 2026. Copyright and image courtesy of Creative Group Hi-Wave. Reproduced with permission.

고하다. 과학자가 할 일은 사실을 모으는 것이며, 언젠가 그 사실이 쌓여 진실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메리 벨이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진다. 그 많은 시신을 대체 어디에서 구해오는 것이냐고. 녹스는 대답한다.

"내 의무는 오직 가르치는 것이오." [4]

이 짧은 대화가 공연을 본 뒤 오래 남았다. 해부학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나의 의무'라는 말 자체는 전혀 낯설지 않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가르치는 것이 의무라면, 그 가르침을 가능하게 하는 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확인하는 일 역시 누군가의 책임이어야 한다.

생각해보면 해부학은 끊임없이 구조의 위치와 기원을 확인

www.kci.go.kr



Fig. 2. The author and fellow anatomists with the actor portraying Robert Knox and the director after attending the Korean production of James Bridie's The Anatomist at the Seoul Theater Creation Center on August 8, 2026. The shared viewing of the play provided the starting point for this Perspective on personhood and ethical attention in anatomy education. Photograph courtesy of Creative Group Hi-Wave. Reproduced with permission.

하는 학문이다. 신경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혈관이 어디에서 갈라지며, 근육이 어디에서 일어나 어디에 닿는지를 묻는다. 그러나 녹스는 정작 해부대 위에 놓인 몸이 어디에서 왔는지에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몸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의 문제는 과학을 사랑했다는 데 있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너무 굳게 믿은 나머지, 그 믿음의 바깥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데 가깝다. '몰랐다'는 것과 '묻지 않았다'는 것 사이의 거리는 오늘날 해부학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성찰해야 할 문제로 남는다.

검체에서 메리 패터슨으로

연극 전체에서 내게 가장 오래 남은 것은 버크와 헤어의 범죄도, 녹스에 대한 도덕적 판단도 아니었다. 검체가 한순간에 다시 사람으로 보이는 장면이었다. 이 글은 사실상 이 장면 하나를 해부학 교육과 연구의 언어로 옮겨 보려는 시도에 가깝다.

몇 시간 전, 메리 벨과 헤어진 월터는 스리 턴스(Three Tuns) 술집에서 술에 취해 절망한다. 한국 공연에서는 이 순간이 인상적으로 연출된다. 월터는 마치 자신의 심장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이고, 심장은 검게 타버린 듯하다. 그때 붉은 머리의 젊은 여자, 메리 패터슨이 등장해 그에게 말을 걸고 숄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는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도, 사랑이 시작된 것도 아니다. 그저 아주 짧은 위안이었다. 검게 타버린 것 같던 월터의 심장이 이 만남으로 잠시 다시 붉어지는 듯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새벽. 버크와 헤어가 녹스의 해부실로 커다란 상자를 가져온다. 월터에게 그 안의 것은 처음에는 하나의 해부용 검체일 뿐이다. 그러다 상자의 뚜껑과 옆면 사이에 끼어 있는 붉은 머리카락 한 가닥이 눈에 들어온다. 몇 시간 전 술집에서 본 바로 그 머리카락이다. 월터는 상자를 열고, 그 얼굴을 본다.

"메리! 그래, 그 이름이었어. 메리 패터슨."[4]

이 장면(Fig. 3)에서 월터가 받은 충격은 단순히 살해된 여성을 발견했다는 데 있지 않다. 그는 앞서 메리 패터슨을 살아 있는 한 사람으로 만났으며, 해부실에서 비로소 그 인물과 해부대 위의 몸이 동일한 사람임을 인식한다. 이 장면은 김춘수의 시 「꽃」이 말하는 '이름'의 의미를 떠올리게 한다[5]. 이름을 통해 익명적인 존재가 특정한 한 사람으로 인식되듯, 월터에게 해부대 위의 몸은 더 이상 익명의 해부 대상이 아니라 메리 패터슨이라는 이름과 삶을 가진 개인이 된다. 술집에서 이미 들었던 그녀의 이름은 해부실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월터와 녹스의 태도가 갈라지는 지

www.kci.go.kr



Fig. 3. Walter Anderson recognizes Mary Paterson in Robert Knox's dissection room in the Korean production of James Bridie's The Anatomist. The scene marks the moment in which an anonymous body becomes reconnected, for Walter, with the name, face, and life of a person he had encountered only hours earlier. Photograph by Lee Jun-seong. Copyright and image courtesy of Creative Group Hi-Wave. Reproduced with permission.

점이기도 하다. 월터는 해부대 위의 몸을 메리 패터슨이라는 개인으로 인식하게 되지만, 녹스는 여전히 그것을 해부학 교육에 필요한 대상으로 바라본다. 월터가 버크와 헤어에게 돈을 지급한 일을 문제 삼자, 녹스는 그 돈을 실제로 전달한 사람이 월터였음을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월터는 자신 역시 시신을 공급받는 구조에 참여하고 있었음을 깨닫는다[4]. 따라서 극이 제기하는 책임의 문제는 버크와 헤어의 범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해부용 시신을 필요로 했던 당시의 해부학 교육, 그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시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던 관행으로 그 범위가 확장된다.

한국어 극본은 해부용 시신을 '검체'로 옮긴다[4]. 오늘날 의학에서 '검체'라는 말을 들으면 대개 혈액이나 조직처럼 검사실로 보내는 작은 표본을 떠올린다. 사람의 몸 전체를 검체라고 부르는 말이 유난히 차갑게 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차가움 때문에 이 단어가 오래 남았다. 한 사람에게서 이름과 삶이 지워질 때 그 존재는 '메리 패터슨 → 한 사람의 몸 → 해부 대상 → 검체'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월터에게 일어난 변화는 정확히 그 반대였다. '검체 → 메리 패터슨.' 이 짧은 역방향 이동이야말로 이 글이 해부학 교육과 연구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다.

이 장면은 오늘날의 해부학 교육에도 하나의 공동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해부대 위의 몸에서 여전히 한 사람을 보고 있는가.

다시 강의를 시작하는 사람

브리디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도덕극으로 마무리하지 않는다. 녹스는 완전히 몰락하지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단순한 악인으로 그려지지도 않는다. 사건이 모두 지나간 뒤 그는 다시 강의를 시작하며, 그 주제는 뜻밖에도 코뿔소의 심장이다[4]. 브리디가 이 장면에 어떤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므로 과도한 해석은 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목할 점은, 여러 사람이 죽고 범죄가 드러나 사회적 분노가 커진 뒤에도 해부학 교육은 다시 계속된다는 사실이다.

교육과 연구는 사건 이후에도 지속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학문이 계속된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이전의 사건이 어떻게 기억되고 반영되는가에 있다. 사건이 일상 속에서 잊히는지, 아니면 그 경험이 이후의 교육과 학습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지는 해부학 교육의 윤리와 직접 연결되는 문제다. 버크와 헤어, 그리고 녹스의 이야기가 1828년의 역사적 사건에 머물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늘날의 기증된 몸

오늘날의 해부학 교육과 연구는 녹스의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조건 위에 서 있다. 해부용 시신의 역사를 되돌아

www.kci.go.kr

보면 사형수의 몸, 무연고자의 몸, 도굴되고 불법적으로 거래된 몸을 거쳐 오늘날의 자발적 시신기증으로 이어지는 큰 변화가 확인된다[2,6]. 이것은 단순히 시신을 확보하는 절차가 바뀌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해부학실습실에서 만나는 몸은 누군가에게서 빼앗아온 몸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의 뜻으로 우리에게 맡긴 몸이다. 이 차이는 매우 크다.

그러나 제도가 달라졌다고 해서 『해부학자』가 던지는 질문까지 함께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해부학실습실에서 반복되는 실습과 시험은 학생과 교원 모두를 몸의 구조를 정확하게 보는 데 익숙하게 만든다. 오늘은 상지를, 다음은 흉부를, 다음은 신경과 혈관의 주행을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매일 반복하다 보면 눈앞의 몸은 어느 순간 '배워야 할 구조들이 들어 있는 대상'으로 느껴지기 쉽다.

실제로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확인된다. 학생들은 실습 초기에는 기증자에 대한 감사와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지만, 많은 실습과 시험이 이어지면서 어느 순간 시신을 하나의 '학습 교구(learning aid)'처럼 느끼게 된다고 보고했다[9]. 이것을 단순한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사람의 몸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감정을 조절하고 구조에 집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실습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전문적 거리두기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것이 기증자를 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감각까지 약하게 만들 때 대상화가 시작된다. 따라서 다시 돌아보는 순간이 개인의 선의에만 맡겨지지 않고 해부학 교육과정 안에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대만 자제대학교(Tzu Chi University)의 '침묵의 스승(Silent Mentor)' 프로그램은 이러한 필요를 정면으로 다룬 사례다. 기증자를 단순한 해부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기억하는 교육적 접근을 발전시켰다[7]. 국내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이어져 왔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감은제 역시 그러한 사례 가운데 하나다[8]. 감은제는 해부학 지식을 확인하는 행사가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기억하는 자리다.

Chang 등의 연구에서 한 학생은 묵념을 할 때 기증자의 이름을 떠올린다고 말했다[9]. 이 대목을 읽으면 다시 메리 패터슨이 떠오른다. 이름, 월터에게 익명의 검체를 한 사람으로 되돌려놓았던 바로 그것이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감은탑에는 몸을 기증한 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탑문은 그 앞에 선 사람들에게 말한다. '몸은 산화하였고, 이름만 남았다'[8]. 예전에는 이 문장을 주로 추모의 문장으로 읽었다. 그런데 『해부학자』를 보고 난 뒤에는 조금 다르게 들렸다. 월터 앞의 검체가 메리 패터슨이라는 이름을 되찾는 순간과 감은탑의 돌에 남은 이름들이 겹쳐 보였다.

이것이 오늘날 실습에서 기증자의 실명을 학생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인정보와 익명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름'은 조금 더 넓은 뜻을 가진다. 그 몸에 한 사람의 삶이 있었다는 사실, 그 사람이 어떤 뜻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택 덕분에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이다.

추모를 교육과정으로

추모의례는 이러한 기억을 공동체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장치다. 그러나 기증자의 인격성을 환기하는 일이 실습 전 한 번의 선서나 실습을 마친 뒤 한 번의 추모식에만 머문다면, 반복되는 학습과 평가 속에서 그 의미가 희미해질 수 있다. 추모를 교육과정으로 만든다는 것은 의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습과정 중에 '누구에게서 배우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짧고 지속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실습 전에는 시신 조달의 역사와 자발적 기증의 의미, 동의와 익명성의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실습 중에는 일정한 때에 짧은 묵념이나 작은 모임의 대화를 두어, 학생들이 전문적 거리두기와 대상화의 차이를 돌아보게 할 수 있다. 실습을 마친 뒤에는 감은제나 위령제와 함께 돌아봄의 글을 작성하도록 하여, 해부학적 지식뿐 아니라 기증자에게서 배운 자세와 책임을 언어화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는 학생뿐 아니라 교수자와 연구자도 함께해야 한다.

『해부학자』와 같은 서사예술은 이러한 돌아봄을 추모의례에만 맡기지 않고 교육과정 안으로 가져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월터가 익명의 검체에서 메리 패터슨을 알아보는 장면은 전문적 거리두기와 비인간화의 경계, 시신의 출처를 묻는 전문가의 책임, 익명성을 존중하면서도 기증자의 인격성을 기억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게 한다. 연극 관람이나 극본 읽기, 핵심 장면을 중심으로 한 작은 모임의 대화와 돌아봄의 글쓰기는 해부실습의 여러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방법이다.

이러한 교육의 목적은 학생에게 특정한 감정이나 태도를 요구하는 데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학습을 가능하게 한 사람과 그 선택을 인식하고, 그 인식이 실습실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 연구의 절차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추모의례와 돌아봄의 교육은 지식교육의 반대편에 놓인 부가과정이 아니라, 해부학 지식을 정당하고 책임 있게 배우기 위한 조건이다.

www.kci.go.kr

나가며: 사람을 보는 해부학자의 눈

해부학은 사람 몸의 거의 모든 곳에 이름을 붙인다. 신경 하나에도, 혈관 하나에도, 작은 근육과 돌기 하나에도 이름이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수많은 구조에 이름을 붙이면서도, 정작 그 몸의 주인의 이름은 지워버리기도 했다. 버크와 헤어의 세계에서는 사람이 이름을 잃어 해부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의 해부학 교육과 연구는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검체로 보이기 쉬운 몸에서 다시 한 사람을 보려 해야 한다.

Mortui vivos docent. 죽은 자가 산 자를 가르친다. 그러나 죽은 자가 우리의 스승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그를 단순한 재료로만 보지 않아야 한다. 1828년 녹스에게 필요했던 질문은 '이 몸은 어디에서 왔는가'였을 것이다. 오늘의 해부학자에게 그 질문은 '우리는 이 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로 이어진다.

윌터가 새벽의 해부실에서 상자를 열던 장면이 자꾸 떠오른다. 처음에는 검체였다. 그리고 어느 순간 메리 패터슨이 되었다. 몸은 달라지지 않았다. 해부학적으로 달라진 것도 없었다. 달라진 것은 그 몸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이었다. 오늘의 해부학 교육에서 지켜야 할 것도 바로 그 눈일 것이다. 사람의 몸을 가장 자세히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안의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해부학실습실에서 만나는 몸에는 한 사람의 삶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도록 내어준 선택이 있었다. 그러므로 추모와 감사는 해부학 교육의 주변적인 의례에 머물 수 없다. 실습의 여러 단계에서 기증자의 인격성을 다시 인식하게 하는 교육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해부학자』를 보고 가장 오래 남은 것도 살인의 공포나 녹스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다음 하나의 질문이었다.

그 몸에서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보고 있는가?

ACKNOWLEDGEMENTS

The author thanks the director and members of Creative Group Hi-Wave for providing the Korean performance script of The Anatomist, granting permission to cite it, and generously sharing photographs from the production for use in this article.

REFERENCES

1. Richardson R. Death, Dissection and the Destitut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7.
2. Ghosh SK. Human cadaveric dissection: a historical account from ancient Greece to the modern era. Anat Cell Biol. 2015; 48:153-69. https://doi.org/10.5115/acb.2015.48.3.153
3. Bridie J. The Devil to Stage: Five Plays by James Bridie. Carruthers G, ed. Glasgow: Association for Scottish Literary Studies; 2007.
4. Bridie J. The Anatomist. Lee H, trans. Unpublished Korean performance script; 2026. Korean.
5. Kim Chun-su. Kkot [Flower]. In: Kkot-ui somyo [Sketches of Flowers]. Seoul: Baekjasa; 1959. Korean.
6. Park JT, Jang Y, Park MS, Pae C, Park J, Hu KS, et al. The trend of body donation for education based on Korean social and religious culture. Anat Sci Educ. 2011;4:33-8. https://doi.org/10.1002/ase.198
7. Santibañez S, Boudreaux D, Tseng GF, Konkel K. The Tzu Chi Silent Mentor Program: application of Buddhist ethics to teach student physicians empathy, compassion, and self-sacrifice. J Relig Health. 2016;55:1483-94. https://doi.org/10.1007/s10943-015-0110-x
8. Rhyu IJ. The educational meaning of Gam-eun-je: learning of the living through the dead. Medical Humanities [Internet]. 2025;9 [cited 2026 Aug 20]. Available from: https://www.ksmed.or.kr/html/?pmode=webzine&smode=viewDetail&par=13&seq=1463. (Korean).
9. Chang HJ, Kim HJ, Rhyu IJ, Lee YM, Uhm CS. Emotional experiences of medical students during cadaver dissection and the role of memorial ceremonies: a qualitative study. BMC Med Educ. 2018;18:255. https://doi.org/10.1186/s12909-018-1358-0

www.kci.go.kr

간추림 : 제임스 브리디(James Bridie)의 희곡 『해부학자(The Anatomist)』는 1828년 에든버러에서 발생한 버크와 헤어(Burke and Hare) 사건을 바탕으로, 해부학 교육을 가능하게 한 몸에서 한 사람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장면은 젊은 해부학자 월터 앤더슨(Walter Anderson)이 로버트 녹스(Robert Knox)의 해부실에 들어온 익명의 몸에서 몇 시간 전 자신을 잠시 위로했던 메리 패터슨(Mary Paterson)을 알아보는 순간이다. 몸 자체가 달라진 것은 없다. 달라진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월터의 눈이다. 익명의 검체가 이름과 얼굴, 삶을 지닌 한 사람으로 다시 연결된다. 반면 녹스는 해부학적 진실과 가르치는 의무를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해부실에 들어오는 시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묻지 않는다. 사형수와 무연고자의 시신, 도굴과 불법 거래를 거쳐 오늘날의 자발적 시신기증으로 이어진 변화는 해부학 교육의 윤리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반복되는 해부실습과 구조 확인, 평가는 학생과 교수자에게 기증된 몸을 주로 학습 대상으로 경험하게 할 수 있다. 해부학을 배우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전문적 거리두기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기증자를 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감각까지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추모의례와 기증자를 스승으로 기억하는 교육은 이러한 인식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나 기증자의 인격성을 돌아보는 일이 특정한 추모행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해부학 교육과정에서는 실습 전·중·후에 걸쳐 시신기증의 역사와 윤리적 의미를 설명하고, 짧은 돌아봄과 대화, 추모의례와 글쓰기를 통해 누구에게서 배우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 『해부학자』와 같은 연극과 문학 역시 전문적 거리두기와 대상화의 경계, 시신의 출처를 묻는 전문가의 책임, 기증자의 익명성을 존중하면서도 그 인격성을 기억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교육적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목적은 해부실습에 대한 일정한 감정적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몸을 가장 자세히 보는 사람들이, 자신의 배움을 가능하게 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 윤리적 시선을 유지하는 일이다.

찾아보기 낱말 : 해부학 교육, 시신기증, 시신 해부실습, 의학인문학, 기증자의 인격성, 『해부학자』

www.kci.go.kr